

한라시론



문영인 제주농업생명과학박사연구회

무더위와 가을잠바 속에서 농업인들은 생산된 농산물이 모두 팔리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다. 좋은 가격을 받으려면 생산량이 넘치지 말아야 하는데 올해도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월동 무를 줄여야 한다고만 하면서 대체작물을 제시 할 수도 없고, 지역 내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 간 경쟁만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채소류 재배와 관련하여 매월 발표하는 농업관측정보는 주요 작물을 대상으로 파종 전 재배계획 면적과 시기 별 생육 상태, 그리고 지역별 출하동향까지 각종매체를 통

월동채소 휴경보상제 도입할 때가 됐다

해서 홍보하고 있지만, 농업인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면적을 조정해 주면 고마운 일이나 기대와 다르게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 같다. 농정당국에서는 매년 월동채소 재배 전 면적을 줄여 심어줄 것을 홍보하고 있지만 수확시기가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작물이 생겨 '팔아주기 운동'과 신문·방송을 통해 농산물이 원활한 소비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성과는 크지 않다. 월동채소류의 생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업인들이 공통적인 문제이다.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되는 작물을 줄여 다른 작물을 심는다고 해서 가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로서는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처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정부의 조치가 '산지폐기' 제도

를 가동시키는 것이다. 산지폐기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일정량의 농산물을 수확하지 않고 밭에서 폐기하고 영농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중앙정부 30%와 지방정부 30% 지역농협 20% 자부담 20%의 비율로 보상해 농가의 피해를 줄여주는 제도로서 날이 갈수록 많은 작물이 산지폐기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산지폐기 하기 전에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휴경보상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 휴경보상제란 지난 2019년 제주에는 장마에 더해 3개의 태풍이 지나가는 자연재해로 월동채소 농사를 그르치게 됐다. 이때 농업인들이 재난지역선포를 중앙정부에 요청했으나 농작물피해금액은 재난지역선포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 양배추 등 14개 작물의 피해면적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농사를 짓지 않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준적이

있는데 이것이 '휴경보상제'로서 이미 경험했다. 벼농사에서는 2019년부터 '쌀 생산 조정제'가 휴경보상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눈에 아무것도 심지 않는 휴경 280만원, 콩류재배 325만원, 풋거름재배 340만원, 가축사료재배 430만원/ha 순으로 휴경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은 벼농사 직불금을 받을 수 없고, 영농경력에도 포함되지 않는 반면 쌀값은 안정적이라 정부 계획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월동 채소류의 생산량을 알맞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배면적을 줄여도 소득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후 산지폐기보다는 사전에 채소를 재배하지 않을 밭에 대한 '휴경보상제'를 도입해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때가 된 것 같다.

사설

오염하수 방류 연안생태계 파괴 우려된다

제주도내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하수를 바다로 보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수처리 용량이 이미 과부하에 걸리면 오염된 하수가 시도 때도 없이 바다로 방류된 것이다. 제주 연안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 하수처리장 벼농사 직불금을 받을 수 없고, 영농경력에도 포함되지 않는 반면 쌀값은 안정적이라 정부 계획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월동 채소류의 생산량을 알맞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배면적을 줄여도 소득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후 산지폐기보다는 사전에 채소를 재배하지 않을 밭에 대한 '휴경보상제'를 도입해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때가 된 것 같다.

제주도내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하수를 바다로 보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수처리 용량이 이미 과부하에 걸리면 오염된 하수가 시도 때도 없이 바다로 방류된 것이다. 제주 연안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 하수처리장 벼농사 직불금을 받을 수 없고, 영농경력에도 포함되지 않는 반면 쌀값은 안정적이라 정부 계획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월동 채소류의 생산량을 알맞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배면적을 줄여도 소득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후 산지폐기보다는 사전에 채소를 재배하지 않을 밭에 대한 '휴경보상제'를 도입해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때가 된 것 같다.

편집국 25시

선출 권력의 부재



이상민 정치부 기자 hasm@ihalla.com

"공직시스템은 도지사가 누구든 잘 굴러갈 수준이다." 도지사 공백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영부새처럼 같은 답변이 반복됐다. 걱정을 덜어줄 요량으로 한 말일 테지만, 정말 도지사가 없어도 잘 돌아갈 세상이라면 우린 도지사를 뺐을 필요가 없다. 돌이켜보니 초점을 '지사가 없어도 도정이 잘 운영될 수 있을까'에만 맞추다보니 뻘한 대답이 반복된 것 같다. 나는 선출 권력 부재의 의미에 대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 원희룡 전 지사 사퇴로 도정은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권한대행은 공무원 인사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권을 원도정 최고책임자가 됐다. 이미 권한대행은 새 정부부지사를 지명하며 첫번째 인사 권한을 행사했다. 이유 불문하고 도정에 새로운 통치권력이 탄생했다.

그러나 우리는 권한대행에게 통치권력을 위임한 적이 없다. 도민들은 선거로써 원 전 지사가 도백을 맡는 것에 승복했을 뿐, 갑자기 그가 아닌 새로운 통치 권력이 탄생하는 걸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가 준 권력을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이에게 넘겨준 사람은 원 전 지사다. 따라서 선출 권력의 중도 사퇴는 또다른 의미에선 참정권 훼손이다. 한 표의 무게를,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정권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하고 또 고뇌했을까. 난 알지 못한다. 지사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아꼈지만 침해된 참정권을 회복할 기회는 사라졌다. 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한 선관위 결정엔 명과 암이 있다. 소용돌이 치는 제주의 현실을 아는 지 모르는지, 하루가 멀다하고 그의 소식이 들려온다. 대구지역 소상공인 앞에서 무릎 꿇은 사진이 눈에 들어온다. 마음이 번거롭다. 가장 먼저 무릎 꿇을 곳은 그곳이 아니라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 표를 구하는 일보다, 한 표의 가치를 지키는 일을 더 소중히 여길 정치인은 영영 없을 것만 같아서다.

뉴스-in

조계사 큰스님들 찾아간 기독교 신자

원희룡 대선후보 지지 호소 성 시기와 관련 사업 변경에 따른 추가 결재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대규모 사업예산 수립 시 적정한 공법선정 등 비용 절감 방향으로 편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 이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설계·공법변경이 있어선 안 된다"며 "예산 및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하라"고 강조. 이윤형기자

성 시기와 관련 사업 변경에 따른 추가 결재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대규모 사업예산 수립 시 적정한 공법선정 등 비용 절감 방향으로 편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 이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설계·공법변경이 있어선 안 된다"며 "예산 및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하라"고 강조. 이윤형기자

수산직불금, 누군 받고 못받는 불합리 안돼

수산직불금이 어떤 누군 받고 못받는 현실로 인해 소득 보전이라는 당초 취지를 크게 잃고 있다. 수산직불제 대상이 농어촌지역이나 도시지역 어디에 거주하는지 여부로 갈리면서 어업 종사자간에 형평성을 잃고 있어서다. 정부와 제주도가 법 규정을 이유로 해법을 찾지 못한 한 동네나 다름없는 이웃주민 간에도 희비가 엇갈리는 현실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는 이달초 해양수산부를 방문. 조간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적용대상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내 어민중 농어촌지역 거주자가 아닌 중지역, 즉 제주 시내 9개동과 서귀포시 1개동에 사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현실 탓이다. 도가 도서(섬지역) 거주 주민도 대상인 점을 들어 제주를 섬지역으로 확대 해석, 전 어민들에게 혜택을 달라는 건의를 한 것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제주 본섬을 섬으로 인정 않는 '섬발전 촉진법'을 근거

로 수용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제주 본섬에 거주하면서 농어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 10개 동 거주 어민들은 수산직불금을 못받는 역차별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실제 제주시 용담1동(도시지역) 어민은 못받고, 용담2동(농어촌지역) 어민은 받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사실상 한 동네면서 이웃주민 간에 매년 반복되는 것이다. 정부와 도가 문제해결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수산직불금이 어려움에 처한 모든 어민들 소득을 보전한다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 사실상 한 동네 살면서 누군 받고 못받는 불합리성도 방지해선 안될 사안이다. 또 도내 농어촌지역 지정도 지난 2007년 이래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당국은 "모든 법과 규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국민이 법과 규정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부고 김창용(씨제이그린유통(주) 대표) 어머니 공신김씨 신생(향년 91세)께서 서기 2021년 8월 24일 20시 06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8월 26일(목요일) ▶발인일시: 2021년 8월 27일(금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장 지: 양지공원 남 편 김영보 아들 김창용 며느리 강문순 성필 김혜숙 딸 김미자 사위 성충훈 미경 김영대 ※ 연락처 : 김창용 010-3693-9818 김미경 010-7711-7535 김영대 010-4699-7211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김해갑공 성택(향년 79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8월 26일 부인 고춘향 아들 김봉균 며느리 김영숙 장군 딸 김봉효 사위 오현교 이정윤 김라웅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의료안내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